

기도

1.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가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눔

1. 성령을 통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2.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신앙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성경에 직접 표현된 교리는 아니지만 그 사상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다(창1:1-3,26; 민6:24-27; 마28:18-20; 고후13:13).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써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절대 신비이다. 실제로 정통 교회는 이것을 사람의 언어로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단지 삼위일체를 향한 이단들의 공격을 성경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힘써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 덕분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깊은 것 까지도 통달하게 하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더욱 깊이 따라가야 한다.



구역 공과

2023년 12월 3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2장 9-14절 (찬10장, 191장)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오직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9-11절).

바울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9절).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 되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만이 하나님의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모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여 기도로 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의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11절). 이는 우리가 육신의 영을 따라가면 사람의 일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육신에 치우쳐 마음을 빼앗기면 육신 중심으로 살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중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바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발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12-14절).

성령께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1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롬8:15-16).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요16:13).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13-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14절). 그래서 결국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세계를 넘어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면,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영적인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여 사랑으로 서로를 바로 세울 때,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여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 힘쓸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